

고문헌 기술을 위한 LRM 기반 서지구조 구축: 에이전트, 장소, 시간 개체를 중심으로*

Construction of LRM-Based Bibliographic Structure for Describing Old Materials

박민정 (Minjung Park)**

이승민 (Seungmin Lee)***

초 록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AACR 계열의 목록규칙과 서지구조는 한국의 고문헌만이 지니고 있는 서지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의 서지적 측면을 분석하고 FRBR LRM 개념적 모형을 기반으로 기술항목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여 고문헌의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서지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때 관계의 설정은 관련된 고문헌을 서지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문헌, 특히 우리나라의 고문헌이 지닌 서지적 특성과 형태적, 내용적 변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위저록 형태의 단편적인 서지레코드만을 생성하는 기존의 서지 환경에서 벗어나 LRM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서지데이터 단위로 기술항목을 분리 및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지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고문헌의 조직, 관리,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BIBFRAME 형식의 서지데이터 생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BSTRACT

The cataloging rules of AACR families and bibliographic structure, which are broadly used in describing resources, show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uniqu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old materials. Thus this research proposed a bibliographic structure optimized to the uniqu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old materials by establishing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bibliographic entities based on the FRBR LRM conceptual model.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y of connecting related materials in the bibliographic structure. These relationships should sufficiently reflect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physical variations, and content variations. Through this structure,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can be separated and integrated into the bibliographic unit by applying LRM conceptual model. By using the proposed structure, th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Korean old materials can be more efficient. Also, it can provide a new bibliographic environment that can be the foundation of creating BIBFRAME records for Korean old materials.

키워드: 고문헌, 목록규칙, FRBR LRM, RDA, 서지구조

old materials, cataloging rules, FRBR LRM, RDA, bibliographic structure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mj3153p@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ableman@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9월 6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11일

■ 정보관리학회지, 40(3), 197-219,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3.197>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고문헌은 일반자료와는 다른 고유한 서지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문헌은 다른 나라의 고문헌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측면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문헌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구체적으로 생성하고, 고문헌 관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서지적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문헌의 형태 관련 특성, 책임표시 사항, 장소와 시간 관련 특성 등 일반자료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들 때문에 현행 한국목록규칙(Korea Cataloging Rule: KCR) 4판이나 영미 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AACR) 계열의 목록규칙을 고문헌의 서지적 기술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ISBD 기반으로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이한 기술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에서는 KCR4를 기술규칙으로 적용하거나, KORMARC 고서용, KORMARC 통합서지용 등의 서지레코드 인코딩형식을 기술규칙으로 적용하는 등 상이한 방식으로 고문헌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고유한 서지적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동일한 서지적 측면에 대해서 상이한 기술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문헌 소장 도서관이나 기관 사이의 레코드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한국고문헌종합 목록은 고정적인 단위저록 방식이기 때문에, 상이한 서지구조와 기술규칙을 적용하는 각 고문헌 운용 기관의 서지레코드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서지레코드의 상호 운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고문헌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재발행된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과거에 발행된 원문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발행된 이판본, 그리고 현재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된 단행본, 고문헌 운용 기관에서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문 자료와 마이크로자료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문헌 자료가 여러 형태로 재생산된다.

이처럼 분산되어 존재하는 고문헌 관련 자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연계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지레코드 수준에서 고문헌 연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저록 중심의 고정된 서지구조가 아니라 고문헌의 서지적 기술사항을 서지데이터 단위로 분절하고 관련된 단위를 상호연결할 수 있는 FRBR LRM 기반의 서지 구조 적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문헌의 개념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FRBR LRM 기반의 서지적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문헌의 의의 및 가치

현재 고문헌은 고서, 고지도, 고문서 등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이혜은, 2021, 31).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동양의 고문헌, 고서, 귀중본, 고전적, 고간본, 희귀도서 등이 있으며, 서양에서는 second hand book(고서), old book(고서), rare book(귀중본), rare printed books(고간본), manuscripts(필사본, 고서, 원고본), rare book(희귀도서) 등이 사용되고 있다(오세훈, 남태우, 2002, 163).

KORMARC 고서용에서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 필사된 동장본. 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나 고서의 영인본 또는 복제본도 포함될 수 있다”고 고문헌을 정의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0). 이와 유사하게,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 필사된 동장본”으로 고문헌을 규정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또한 KCR4에서는 고문헌의 기준을 “대한제국 이전(1910년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이나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159).

보다 구체적으로 고문헌의 의미가 정의되기도

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문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5가지의 주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고문헌에 대해서는 목록규칙이나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고문헌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을 영속성있게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물리적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귀중(희귀)서는 저작, 간행 또는 필사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장정의 특이성, 재화로서의 경제성, 학술연구를 위한 원형자료로서,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뛰어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1, 76).

2.2 KCR4 고문헌 기술규칙

고문헌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으로, 다른 유형의 자원을 기술할 때와는 차별된 기술항목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문헌은 발견된 직후부터 기관에 기증, 구입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소장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고문헌과 관련된 지적, 물리적 특

〈표 1〉 고문헌의 기준 설정

	고문헌의 기준 설정
발행시기	한국본: 1910년 이전
	중국본: 청말(靑末, 1911년) 이전
	일본본: 메이지유신(1867년) 이전
문자	한문, 한글,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 동양제국의 고어로 된 것
판본	전통 방식의 인쇄나 필사로 제작된 것
장황형태	권자본, 첩장, 선풍엽, 호접장, 포배장, 선장 등으로 된 문헌
내용	전통적인 고유사상과 학술의 성격이 있는 자료

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문헌에 대한 서지적 접근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판본의 식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에 최적화된 서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KCR4의 제4장에서는 고문헌 자료를 기술할 수 있는 '고서와 고문서' 기술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을 기술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특성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4.0 총칙에서는 기술의 범위, 대상, 정보원, 기재순서, 기술방법에 대한 규칙을 통해 기술대상자료의 정보를 채기할 때의 기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1910년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료 자체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채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KCR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헌 기술규칙은 일반자료(단행본) 기술규칙에 기반해서 구성되어 있다. KCR4의 제4장 '고서와 고문서'에는 "제1장 기술총칙의 규정에 준하여 기술한다"와 같은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표기되어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일반자료와는 차별되는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 및 귀중자료로서 그 가치를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 KCR4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총칙을 고문헌에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동일 내용을 수록하는 고문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역, 개작, 번안, 해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재발행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자료들을 서지레코드 혹은 서지구조 상에서 연계하여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련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며,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 재발행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책임 표시사항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한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발행되는 형태, 내용의 변화에 따라 책임표시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변환된 고문헌의 책임표시는 기술의 대상이 되는 고문헌을 식별하는 중요한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AACR 계열의 목록규칙이나 KCR4에서는 관련된 고문헌의 다양한 책임표시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문헌이 발행되고 배포되는 모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관련 정보들, 즉 해당 고문헌과 관련된 서지적 맥락을 서지구조 상에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2.3 고문헌 서지레코드의 현황 및 한계

현재 국내의 고문헌 자료 소장기관은 국립도서관 3개관, 공공도서관 37개관, 국립대학도서관 19개관, 사립대학도서관 67개관, 연구기관 5개관, 박물관 및 기타 소장처 44개관 등 총 175개관이다(옥영정 외, 2021, 2). 각 기관에서는 고문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고 서지레코드를 생성하는데 상이한 기술규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KCR4는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KCR4는 고문헌 자료를 기술하는 기술규칙을 제4장 '고서와 고문서'라는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기술항목은 ISBD를 기반으로 한국의 고문헌 환경에서 나타나는 동양 고유의 서지적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 KCR4를 목록규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이 있으며,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대부분 KCR4의 고문헌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옥영정 외, 2021, 3).

KORMARC 통합서지용을 기준으로 고문헌 서지레코드를 생성하는 기관은 국회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이 대표적이다. 부경대학교 도서관과 충남대학교 도서관 등은 KORMARC 고서용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는 고서목록규칙을 채택하여 고문헌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종로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과 같이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기관 별도의 고문헌 규칙을 규정하여 기술하기도 한다(옥영정, 2021, 9).

이와 같이,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상이한 목록규칙을 채택하여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통일되지 않은 기술항목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문헌 검색을 위한 항목에 있어서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정하, 2003, 63). 특히 고문헌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고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고문헌에 수록된 콘텐츠가 고문헌 원문, 단행본 해제, 마이크로필름 자료, 이미지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서지적 관계를 서지레코드 단위에서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KORMARC는 서지레코드를 생성하는 국내 표준 서지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지도구가 목록규칙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4 DCRMR 배경 및 의의

RDA 운영위원회(RDA Steering Committee: RSC)에서는 서지적 개체, 속성, 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서지적 구조로 FRBR 기반의 RDA를 2010년에 발표하였다(이미화, 2019, 98). RDA는 도서관 소장자료 각각에 대한 단편적인 서지정보가 아닌 자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김정현, 문지현, 김효숙, 2013, 33), 이후 지속적인 개정 과정을 거쳐 2019년에 전면 개정을 하였다. 이는 FRBR LRM 개념적 모형에 기반하여 개체-관계 모델을 적용한 새로운 서지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RDA에는 고문헌을 기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산하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의 Rare books and Manuscripts Section(RBMS)에서는 고문헌에 해당하는 희귀도서와 초기 인쇄 단행본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목록규칙을 제정하였다.

1981년에는 희귀도서에 대한 목록규칙(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are Books: BDRB)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는 1991년에 Descriptive Catalogue of Rare Books(DCRB)

로 계승되었고, 이후 Descriptive Cataloging of Rare Materials(DCRM)으로 개정되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의 목록환경이 RDA 구조를 기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DCRM 또한 RDA 버전을 정립하고, Descriptive Cataloging of Rare Materials RDA edition(DCRMR)을 2022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DCRMR은 현재 고문헌을 기술하는데 적용되는 국제적 목록규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DCRMR은 서양의 회귀서를 기술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국내 및 동양 고문헌의 고유한 특성인 해제자, 교열자 등의 상세한 책임표시사항이나 고문헌의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의 기준, 입수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요소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DCRMR을 한국의 목록환경에 직접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양, 특히 한국의 고문헌이 지닌 서지적 특성들을 반영한 기술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서지레코드 생성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규칙은 전통적인 단위저록이 아니라, 개체-관계형으로 진화하는 서지레코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FRBR LRM 및 RDA에 기반한 서지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변환 혹은 재생산되는 고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체-관계 중심의 서지적 구조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인 DCRMR을 반영하고 LRM의 서지적 구조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문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체-관계 기반의 서지구조 및 기술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관련 자료의 효율적으로 관리,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기 때문에, FRBR LRM의 구조 가운데 개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3.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과 기술규칙 분석

오랜 시간에 걸쳐 재발행되는 고문헌 관련 자료들 각각의 이관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고문헌 고유의 특성들이 서지레코드 상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오세훈, 남태우, 2002, 152). 또한 고문헌을 기술할 때에는 하나의 자료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재발행되면서 원저작과는 서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같은 서지적인 맥락을 기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나의 고문헌이 가지고 있는 서지적 맥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단위저록 형태의 서지레코드에서는 분절된 정보들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해당 측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저록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측면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항목들 간의 관계 설정은 필수적이다.

고문헌에 대한 기술항목 사이의 서지적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면적인 단위저록 방식이 아닌 FRBR 기반의 개념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FRBR LRM 구조는 기술항목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통합 및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서지 환경은 고정적이고 정

형화된 서지레코드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서지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문헌의 고유한 서지적 특성들과 맥락이 기술규칙에 반영되고 기술항목들 사이의 관계가 서지구조에 체계적으로 형성되면, 고문헌의 기술, 조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서지시스템의 구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기술규칙으로서의 DCRMR 서지기술 환경을 중심으로 LRM의 개념적 관계구조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문헌 기술에 최적화된 서지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지적 관계 형성을 위한 모델인 LRM의 11가지 기술영역(레,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개인, 집합 에이전트, 노멘, 장소, 시간범위) 중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넓은 범주를 의미하는 기술영역은 제외하였다. 최상위 계층인 레와 개념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창조물인 저작은 넓은 범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서지기술적 측면의 개체가 아닌 명명을 위한 개체인 노멘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FRBR의 Group 1을 구성하고, 기술대상자료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세 가지 측면은 제외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에이전트, 장소, 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서지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세 가지 개체는 기술의 대상이 되는 자원 자체를 의미한다. FRBR 개념 모델 Group 1에는 저작을 포함하여 세 가지 개체의 관계를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에서 이미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에이전트, 장소, 시간 개체는 자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의 대상이 되는 자원이 생산된 배경과 환경을 설명해 주는 개체이다. 따라서 기술대상자료의 발행 및 배포, 그 이후 소장 과정까지,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서지구조에 나타내려면 이 세 가지 개체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기술대상자료를 기술할 때 주요 접근점으로 활용되는 책임표시사항은 개인과 집합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에이전트 개체를 반영하였으며, 발행년과 발행처 등의 기술항목을 기술하는 장소와 시간 관련 측면을 각각의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 장소, 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고문헌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서지적 기술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3.1 에이전트 관련 특성

고문헌은 일반자료에 비해 보다 다양한 책임 유형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저작 역할어의 표시가 저(著), 찬(撰), 조(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고문헌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생성할 때에는 저작자의 역할이나 성격에 따라 이들 책임사항의 유형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순애, 2011, 150). KCR4의 책임표시사항에는 고문서의 수급자와 발급자를 포함하여 저작자, 편(찬)자, 역자, 각색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수자, 교열자, 해제자(해설자), 원문기고자는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로 구분하여 책임표시의 가장 나

중에 기재하거나 주기사항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번역이나 개작, 번안 등에 관한 사항은 책임표시사항이 아닌 주기사항에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문헌을 기술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책임 및 역할표시를 체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박지영, 2011, 80). 고문헌은 원본을 필사 혹은 다른 형태로 재발행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고문헌의 원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임표시 유형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해당 고문헌의 이판을 식별할 수 있는 서지기술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책임 및 역할 표시를 서지기술항목으로 채택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관련된 고문헌들을 연계할 수 있는 서지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책임표시사항은 원자와 다양한 이판본, 개별자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서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다양한 책임표시를 서지적인 맥락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입수 관련된 기술사항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행 고문헌 관련 기술규칙에서는 저작의 책임표시 이외에 발행처, 배포처, 입수처, 저작권 등과 관련한 기술항목 및 세부 기술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고문헌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특정 고문헌과 관련된 모든 맥락과 정보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문헌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역사가 되기도 하며, 과거를 유추하고 복기하는 데에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고문헌 자료와 관련된 모든 서지정보들은 평등한 중요도를 갖는다. 그

러나 KCR4에서는 발행처를 배포처보다 중요한 기술항목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하거나, 발행처가 존재한다면 배포처를 기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문헌의 입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책임표시사항인 입수처 경로, 구입처, 기증자, 소유권자, 해당 고문헌의 소장자 내력 등이 기술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문헌은 현재는 발행할 수 없는 유한한 자원이자 귀중본으로서, 소장처 보관, 입수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입수처 경로와 관련된 항목인 현소장처, 원소장처의 항목이 대부분의 현행 기술규칙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소장에 관한 사항 및 제작부터 입수까지의 책임사항 내력을 주기사항에만 간단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증본의 경우 소장주기에 이를 기술하고 기증자를 밝힐 수 있지만, 이는 소유권자나 저작권자와 연결시켜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헌 자료가 역사적 산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원본 자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장하게 된 경로와 그 내력을 서지구조 상에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수 관련 사항을 포함한 책임표시에 대해 현행 기술규칙에서는 일반자료의 기술규칙에 준해서 고문헌을 기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문헌의 특성이나 활용 가치의 재창출이 어려운 상태로 서지적 관리와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책임표시사항과 주기사항 등 서지구조 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술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FRBR LRM을 기반으로 설정하면 특정 고문헌을 보다 충실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

료와의 연계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고문헌에 대한 '기증' 측면을 기술할 경우 기증자와 기증받은 자가 각각 누구인지 기술하는 현행 목록규칙에서 더 나아가 'donor-owner'의 관계 부여를 함으로써 그 둘을 서지구조 상에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기증된 자료와 이들 간의 관계를 'isDonatedBy', 'isDonatedTo'로 저작 혹은 구형형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LRM 기반 구조는 고정적인 단위저록이 아니라 분리된 데이터 단위의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기증자가 A라는 것뿐만 아니라 A가 기증한 개별적인 자료들을 이들 관계를 통해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증'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서지구조 상에서 연결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폭넓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해진다.

3.2 장소 관련 특성

현행 KCR4에서는 고문헌의 장소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술총칙의 발행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행지, 배포지, 보급지, 인쇄지, 제작지와 관련한 규칙을 적용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지불명인 경우에는 발행지를 대신하여 배포지를 기재하고, 발행지와 배포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지만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배포지와 보급지, 인쇄지는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지만, 발행지를 대신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를 기재하고 있다. 제작지 역시 발행지불명인 경우와 발행지와 제작지가 다를 경우 기술하고 있다.

일반자료와 비교되는 고문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발행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행처 및 그 발행처가 위치한 장소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기술대상자료의 보급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현재의 일반자료와는 달리, 고문헌 자료는 발행지불명의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발행지와 배포지가 일치하지 않고 그 보급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자료와 같은 발행지 우선의 기술규칙을 고문헌의 기술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지, 배포지, 제작지 등을 수평적인 수준에서 서지레코드에 반영함으로써 고문헌의 장소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서지레코드는 발행지, 배포지, 보급지, 인쇄지, 제작지 등 해당 장소의 역할을 기술 규칙으로 규정하고 'A는 발행지이다'와 같이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더불어 발행지와 배포지를 모두 알 수 있는 경우, 발행지만을 기재하는 등 각 장소들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문헌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해 온 맥락에 따라 기술항목을 채택하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장소들의 중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목록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서지적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FRBR LRM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목록환경은 기술대상자료와 관련된 장소 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 고문헌이 지닌 서지적 맥락에 따라 장소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개별적인 장소 항목들을 동등한 수준에서 서지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LRM을 기반으로 장소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집중하여 기술하는 것이 관련된 장소들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부여된 관계를 기반으로 서지구조 상에 다양한 장소들의 체계적인 맥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3 시간 관련 특성

고문헌의 서지레코드를 생성할 때 고려하는 시간 관련 항목으로는 발행년과 배포년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들 수 있다. 발행년과 관련해서는 최신재쇄년, 판권년, 제작년, 최초발행년, 최종발행년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술규칙이 현 KCR4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배포년이 발행년과 다를 경우에는 발행년 다음에 부기하거나, 발행년불명인 경우 제작년을 기재 혹은 역조명으로 추정하여 기술하는 규칙이 대부분의 고문헌 관련 기술규칙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문헌 자체에 대한 시간 관련 항목들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외에 소장시기와 관련된 항목이나 기증, 구입 등의 시간 관련 항목들은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 주기사항에 기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소장에 관한 사항은 '소장자료와 관련된 특이한 점이나 불완전한 점이 있으면 이를 주기한다'와 같이 일반주기로 기술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장 시작일이나 소장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문헌 소장 시작일과 소장 기간은 고문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참고되는 항목으로서 주요 기술항목으로 마련될 필

요가 있다. 해당 고문헌이 구입과 기증의 절차를 통해 기관에 소장된 경우에는 정확한 구입일과 기증일 역시 저작권의 판단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기술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 개체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는 발행년, 배포년, 제작년 등의 시간과 관련된 항목들의 중요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DCRMR에서는 고문헌의 시간 관련 정보를 기술하는 규칙으로 발행년, 배포년, 제작년, 인쇄년 등의 항목으로 상세하게 구분짓고 있지 않다. 5.23 Date of publication과 5.33 Date of manufacture 등에서 알 수 있듯 저작, 구현형 등의 관점에서 관련된 시간 정보들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위에 발행, 배포, 제작 등의 기술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항목들의 중요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DCRMR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항목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고문헌의 특성 상 발행년과 배포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포년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복본이 발행된다는 고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초발행년과 최종발행년, 최신재쇄년 등은 해당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기술항목을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은 DCRMR과는 다르게 시간 관련 개체의 기술항목을 나누어 제안하고 중요도는 차등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간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련된 측면을 개별적

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닌 각각이 시간적 측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통해 전체적인 시간적 측면을 기술하는 것이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시간적 측면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기존 KCR4에서는 시간 관련 기술항목들이 '발행년은 ~이다'와 같이 독립적으로 정의되었지만, LRM을 기반으로 한 서지구조에서는 시간 관련 항목들이 특정 관계로 연결되어 기술대상자료의 역사와 발행에 대한 시대적, 시간적, 발행적 맥락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다. 이에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항목들을 설정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3.4 고문헌 기술항목의 개체-관계 구조화 필요성

동일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저작이 여러 형태로 생산되며, 다양한 표제로 표현되는 고문헌은 관련된 자료들을 서지구조 상에서 연계시켜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된 고문헌들이 저작 단위에서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 콘텐츠, 동일 형식 등 관련된 고문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지적 환경의 마련은 현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표시사항이나 장소, 시간 측면에서 고문헌과 관련한 정보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문헌의 고유한 서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책임유형들

을 갖는 책임표시사항을 언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위치와 시점이 다르게 존재하여 각각의 자료마다 서로 다른 서지적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LRM을 기반으로 한 관계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LRM 구조는 서지적 개체와 이들 개체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개체-관계를 통해 체계화된 서지구조 속에서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 설정은 단위저록 형태의 고정적인 구조를 벗어나 통합과 분리가 가능한 서지데이터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문헌이 지닌 다양한 서지적 측면들을 보다 충분하게 기술하고, 관련된 측면들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문헌의 고유한 서지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기술항목 및 관련된 기술항목을 연계시킬 수 있는 서지적 관계 구조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문헌의 조직, 관리,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지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고문헌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고문헌 기술구조 구축

고문헌의 경우, 원문을 해석하거나 주석 및 평론을 하고 개작하기도 하며,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원 저작에서 파생된 다양한 저작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고문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목록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서지적 관

계를 분석하고 이를 목록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현, 2015, 3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의 고유한 서지적 특성을 반영하고 고문헌의 서지적 개체 사이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LRM 기반의 기술항목 및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4.1 LRM의 구조

LRM은 링크드 데이터 기반의 서지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이며, FRBR의 기본적인 구조에 기반하여 이용자 과업과 개체, 속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 모델인 FRBR을 대체하는 LRM은 서지정보의 논리적 구조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레(Res),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개인, 집합 에이전트, 노멘, 장소, 시간범위의 총 11개 개체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 개체는 3개 계층으로 구조화되어 있다(이미화, 이은주, 노지현, 2022, 27) (<표 2> 참조).

최상위 계층에는 레(res) 개체가 존재한다.

레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며, 자원의 주제를 나타내는 개체이다. 또한 10개의 개체를 하위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체로 인식되고 있다(Riva, Bœuf, & Žumer, 2017, 20).

두 번째 계층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노멘, 장소, 시간범위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work)은 지적 혹은 예술적인 내용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이는 개념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대상은 하나의 저작으로 식별될 수 없다. 표현형(expression)은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을 전달하는 독창적인 조합들로, 동일 저작을 표현의 차이를 통해 식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구현형(manifestation)은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이 서로 다른 물리적인 형태에 수록되어 구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개별자료(item)는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특정 대상이며, 에이전트(agent) 개체는 대상이 되는 개체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체를 의미한다. 노멘(nomen)은 지칭을 위한 개체로,

<표 2> LRM 11개 개체의 3가지 계층(Riva, Bœuf, & Žumer, 2017)

Top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E1: 레(res)	E2: 저작(work)	
	E3: 표현형(expression)	
	E4: 구현형(manifestation)	
	E5: 개별자료(item)	
	E6: 에이전트(agent)	
		E7: 개인(person)
		E8: 집합 에이전트(collective agent)
		E9: 노멘(nomen)
		E10: 장소(place)
		E11: 시간범위(time-s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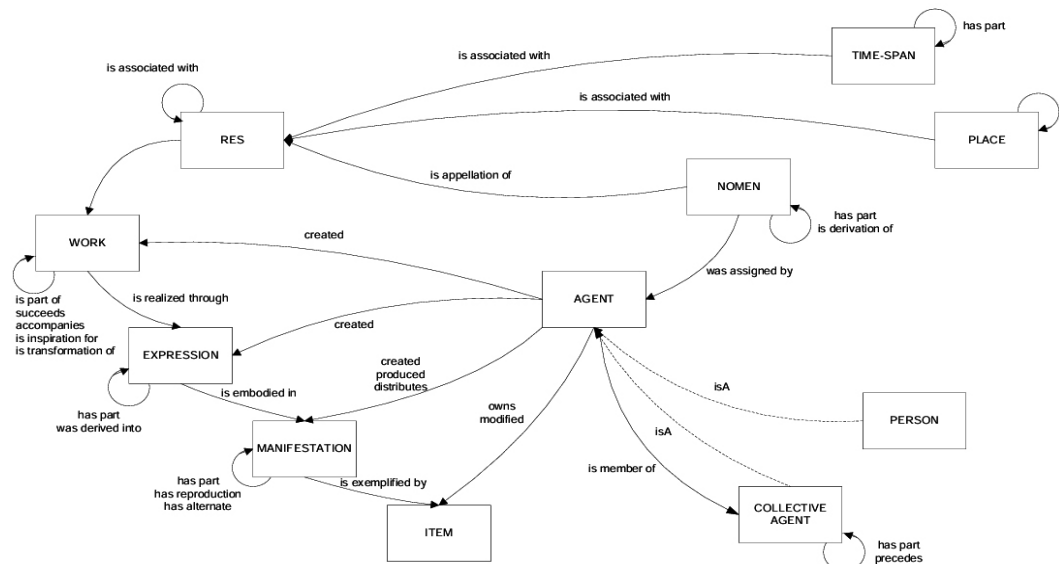
특정 개체 혹은 인스턴스가 명명될 때 해당 개체는 적어도 하나의 노멘을 통해 명명되며, 개체와 인스턴스, 그리고 이들의 명칭을 연결하는 개체이다. 장소(place)는 대상과 관련된 공간, 시간범위(time-span) 개체는 대상과 관련된 기간 및 일시와 관련된 개체이다(Riva, Bœuf, & Žumer, 2017, 21-36).

세 번째 계층은 개인과 집합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에이전트 개체의 하위 개체로서, 자원에 대한 권리, 책임을 지니는 개인과 집단을 의미한다(Riva, Bœuf, & Žumer, 2017, 29-30). 이상의 11개 개체들은 상호간에 연결되는 관계를 갖게 되며, LRM은 다양한 개체와 속성, 관계를 표현하여 관련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서지구조상에 최적화할 수 있다(윤소영, 박지영, 이혜원, 2017, 50).

개념적 대상인 저작(E2)은 다양한 표현방식(E3)에 따라 실현되고, 개별적인 물리적 형태

(E4)에 수록되어 구현된다. 구현된 저작은 독립된 개별자료(E5)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개체-관계 기반의 서지적 관계가 형성된다.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 에이전트(E6)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행위자인 에이전트에 의해 창조, 구현, 배포, 소장, 수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상위 계층인 레(E1)는 저작(E2)과의 관계를 통해 해당 저작의 주제를 정의하게 된다. 레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저작들을 서지구조상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명명할 시 노멘(E9)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레(E1)는 모든 물리적,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장소와 시간에 해당하는 서지적 측면들은 장소(E10) 및 시간범위(E11) 개체와 연관되는 관계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LRM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도식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FLA에서 제시한 LRM의 전체 다이어그램(Riva, Bœuf, & Žumer, 2017, 71)

이러한 관계 구조를 고문헌의 서지레코드 생성에 적용하면 고문헌이 지닌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문헌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하나의 고문헌 저작에 다양한 관련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을 지니고 있는 서지적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문헌 서지데이터를 생성할 때 LRM 구조를 기반으로 적용한다면, 이러한 고문헌의 다면적인 서지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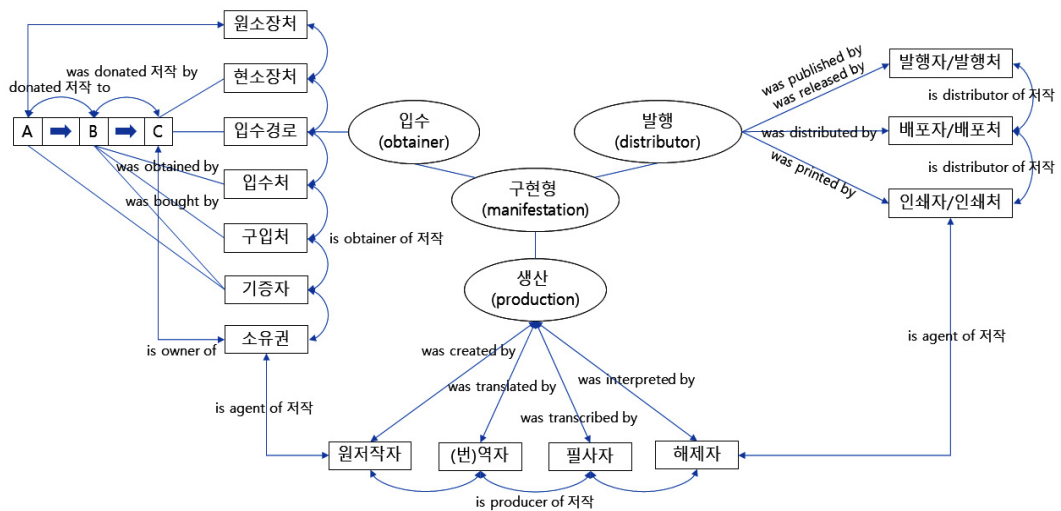
4.2 에이전트(agent) 개체

에이전트 개체는 자원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개인과 단체를 의미한다. 고문헌과 관련된 에이전트로는 고문헌 발행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과거의 여러 책임사항들, 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소장, 기증, 구입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고문헌의 서지적 내력

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책임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에이전트 개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고문서의 수급자와 발급자, 고서의 저작자, 필사자, 역자, 해제자 등과 같이 고문헌의 내용에 책임을 가진 다양한 책임표시사항들과 함께, 고문헌의 발행 및 배포와 관련된 발행처, 배포처, 보급처, 인쇄처, 입수처, 저작권, 그리고 입수경로, 현소장처, 원소장처, 구입처, 기증자, 소유권의 기술항목을 포함하여 LRM 구조의 에이전트 개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에이전트 개체로 분류되는 각 기술항목들의 관계를 설정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현재 DCRMR에서는 하나의 기술대상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기술항목을 'produc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저작을 창조한 저작자뿐만 아니라 필사자, 편(찬)자, 역자, 각색자, 감수자, 교열자, 해제자 등 고문헌의 다양한 책임표시사항을 기술하는



<그림 2> 고문헌 권리와 책임 관련 항목의 서지구조

데 있어서는 책임표시사항의 의미적 범위를 확장한 생산자(production)가 보다 효율적인 기술항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DCRM을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술항목을 'production'으로 설정하였다(〈표 3〉 참조).

이때 기술대상자료를 창조한 원저작자와의 관계는 DCRM을 참고하여 'created'로 부여하였다. 창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성격을 나타내며, 해당 자료와 production이 기술항목으로 연결되는 책임표시사항들은 기술대상자료의 생산자라는 맥락 속에서 'is producer of'의 관계로 연결된다.

발행과 관련된 기술항목은 'distributor'로 설정하여 발행사항뿐만 아니라 배포, 보급, 인쇄 등 보다 넓은 의미의 발행과 관련된 기술항목을 포함한다. 입수와 관련된 기술항목은 'obtainer'로 설정하여 입수경로를 기술함으로써 그 경로

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사항들의 관계를 부여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서지상에 연결한다(〈표 4〉 참조).

발행자 및 발행처의 관계는 보다 세부적인 의미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발행을 의미하는 'published/was published by'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고문헌의 첫 발행 개념을 기술하기 위한 'release/was released by'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저작과 발행의 연결을 서지구조 상에서 표현할 수 있다. 고문헌의 배포를 의미하는 distributor가 기술항목으로 연결되는 책임표시사항들은 기술대상자료의 배포자라는 맥락 속에서 'is distributor of'의 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입수와 관련된 기술항목은 하나의 기술대상자료가 C에게 입수되기까지 그 경로가 'A-B-C'라고 가정할 때, A는 원소장처, 그리고 C는 현

〈표 3〉 고문헌 생산과 관련된 에이전트 개체의 관계 설정

생산(production)		
원저작자	created	was created by
(번)역자	translated	was translated by
필사자	transcribed	was transcribed by
해제자	interpreted	was interpreted by

〈표 4〉 고문헌 발행과 입수와 관련된 에이전트 개체의 관계 설정

발행(distributor)			입수(obtainer)		
발행자 발행처	published	was published by	입수처	obtained	was obtained by
	release	was released by	구입처	bought	was bought by
배포자 배포처	distributed	was distributed by	기증자	donated	was donated by
인쇄자 인쇄처	printed	was printed by	소유권	owned	was owner of

소장처로 정의한다. 현소장처인 C에게 입수되기 직전 소장처인 B는 입수처, 구입처가 될 수 있으며, 기증의 과정을 통해 입수된 것이라면 기증자의 책임사항을 지닐 수 있다. 만일 입수의 과정에서 소유권을 함께 입수한 것이라면 소유권자는 C가 될 것이며,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채 보존과 대여의 목적으로 입수한 것이라면 소유권자는 A나 B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책임사항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부여받게 되며, 'own', 'donate', 'buy', 'obtain' 등 다양한 관계가 각 상황에 따라 설정된다. 입수 항목 하위의 책임표시사항들은 'is obtainer of'의 관계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에이전트 개체에 기술되는 모든 책임표시사항들은 'is agent of 저작'의 관계를 갖게 된다.

4.3 장소(place) 개체

장소 개체는 기술대상자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장소를 반영하는 개체이다. 발행지, 배포지, 보급지, 필사지, 인쇄지, 제작지, 기증장소 등 고문헌의 장소 관련 항목들을 LRM 구조의 장소 개체에 적용하여 서지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장소 개체는 기술대상자료가 발행된 상황에 따라 장소와 관련된 명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항목 사이의 상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에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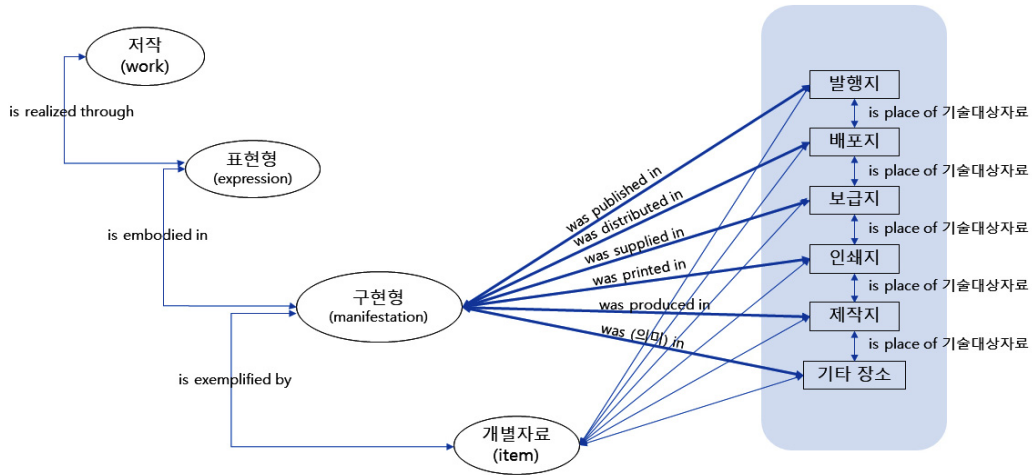
IFLA에서 제시한 LRM의 전체 구조에는 장소 개체가 최상위 계층인 레하고만 연결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구현형, 개별자료 개체가 지닌 속성과 서지적 맥락에 따라 각각

의 개체와 관련이 있는 장소 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

동일 콘텐츠가 여러 형태로 재생산되는 고문헌은 다양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체를 지닌다. 각각의 자료와 관련된 장소 개체들의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고문헌의 서지적 맥락을 이해 또는 유추할 수 있다. 발행 및 배포, 보존 등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해당 고문헌이 긴 역사를 거치며 어떻게 제작되었고, 특정 장소에서 발행 및 배포되었을 때 서지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비교적 구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DCRMR에서는 5.21 Place of publication, 5.26 Place of distribution, 5.31 Place of manufacture 등을 이용해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규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현형, 개별자료 각각의 개체에 장소와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3〉 참조).

장소 기술항목으로는 기존 목록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발행지, 배포지, 보급지, 인쇄지, 제작지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이외의 의미를 지니는 장소는 기타 장소로 표현하여 제한 없이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비교적 많은 장소 이동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지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고문헌의 특성상 규정되지 않은 의미를 가진 장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장소를 제한 없이 기술하고, 지닌 의미에 따라 관계 설정을 함으로써 서지 구조의 확장 및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장소 개체에 기술되는 모든 장소들은 서로 'is place of 기술대상자료'의 관계를 갖는다.



〈그림 3〉 고문헌 장소 관련 항목의 서지구조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각각의 관계는 IFLA에서 제시하고 있는 FRBR Group 1의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기존의 FRBR Group 1에서는 4개 개체만을 반영하여 비교적 추상적으로 기술대상자료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를 가진 관련 자료들이 많은 고문헌의 특성에 따라 상세한 기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기술항목을 서지적 맥락에 따라 개별적인 기술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LRM의 장소 개체 내에서 고문헌과 관련된 장소가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발행, 배포, 보급, 인쇄, 제작'의 다

양한 의미를 가진 항목들을 제안하여 관계를 부여하였으며, 제안한 5가지 이외의 장소를 기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타 장소로서 의미에 따라 'was (의미) in'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장소 기술항목들을 Group1의 구현형, 개별자료와 연계하여 설정하였다(〈표 5〉 참조).

4.4 시간범위(time-span) 개체

LRM 구조의 시간범위는 기술대상자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일시와 기간을 반영하는 개체이다. KCR4에는 고문헌의 발행년과 배

〈표 5〉 고문헌 장소 개체의 관계 설정

E2-E5(work-item)			장소(place)	
저작-표현형	realized	is realized through	발행지	was published in
표현형-구현형	embodied	is embodied in	배포지	was distributed in
구현형-개별자료	exemplified	is exemplified by	보급지	was supplied in
			인쇄지	was printed in
			제작지	was produced in
			기타 장소	was (의미) in

포년에 대한 기술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최신재쇄년, 판권년, 제작년, 최초발행년, 최종발행년의 기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고문헌의 시간 관련 기술항목을 LRM 구조를 기반으로 Group 1과 연계함으로써 고문헌의 시간 관련 기술사항을 확보하고 접근점 마련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5가지 항목 이외의 시간 관련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기타 시간 항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해당 시간이 가진 의미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서지구조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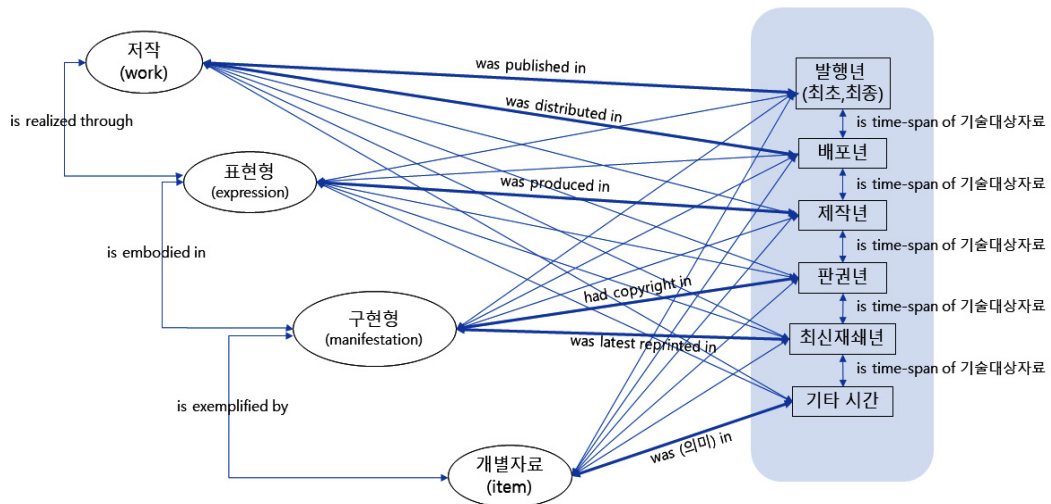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는 시간 관련 항목을 기술할 때, 주로 발행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문헌의 특성 상 발행년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시간 항목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문헌의 소장과 관련된 정보는 고문헌의 기술, 운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증일이나 구입일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서지적 특성이다.

이를 시간범위 개체에 적용하여 다양한 관계 설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동일한 표현형, 구현형이라 하더라도 개별자료 단위에서 서로 다른 시간범위와 소장사항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범위 개체에 대해서는 개별자료 개체에 한하여 서지구조에서의 관계를 구성하였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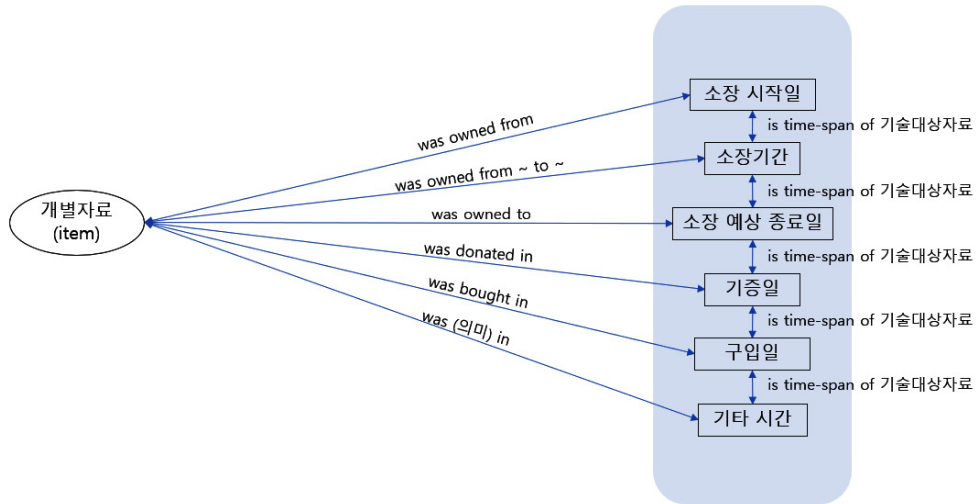
개별자료의 관점에서 소장시작일, 소장기간, 소장 예상 종료일, 기증일, 구입일, 기타 시간의 기술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확장성을 지닌 이외의 장소들은 의미에 따라 'was (의미) in'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시간범위 개체의 기술항목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4.5 '묘법연화경'의 FRBR LRM 기반 서지기술구조

고문헌의 경우, 원문을 해석하거나 주석 및



〈그림 4〉 고문헌 시간 관련 항목의 서지구조



〈그림 5〉 고문헌 시간 관련 항목의 서지구조

〈표 6〉 고문헌 시간범위 개체의 관계 설정

시간범위(time-span)			
발행년	was published in	소장 시작일	was owned from
배포년	was distributed in	소장 기간	was owned from ~ to ~
제작년	was produced in	소장 예상 종료일	was owned to
관련년	had copyright in	기증일	was donated in
최신재쇄년	was latest reprinted in	구입일	was bought in
기타 시간	was (의미) in	기타 시간	was (의미) in

평론을 하고 개작하기도 하며,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원 저작에서 파생된 다양한 저작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고문헌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목록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고 목록 기술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정현, 2015, 318). 하지만 현재의 단위저록 중심의 기술규칙에서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관련 개체를 집중시키기 어려우며, 따라서 RDA 기반으로 진화하는 목록환경에 대

응하여 FRBR LRM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LRM은 RDA의 기반이 되는 구조이며, 실제 자원들과 이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LRM 구조의 적용을 통해 고정된 단위저록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리된 서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고문헌 고유의 서지적 특성을 LRM의 서지구조 안에서 세부적 기술항목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안한 고문헌 기술항목 및 이의 FRBR

LRM 구조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문헌 고유의 서지적 특성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경전을 대상으로 제안한 LRM 구조의 확장에 적용하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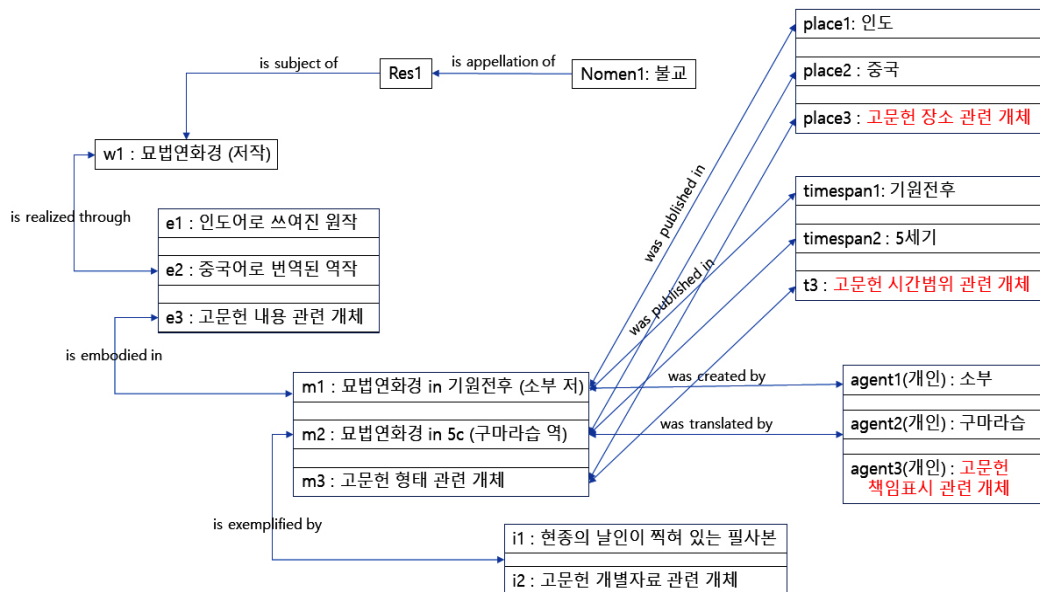
하나의 저작(w1)인 묘법연화경은 인도어(e1), 중국어(e2)의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표현형으로서 나타나고, 기원전후(t1)와 5세기(t2)에 걸쳐 서로 다른 형태로 발행된 구현형(m1, m2)으로서 존재한다. 현종의 날인이 찍혀진 묘법연화경(i1)은 하나의 개별자료가 되며, 소부(a1)와 구마라습(a2)은 각각의 묘법연화경에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 개체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 원저작자와 (번)역자의 'was created by', 'was translated by'의 관계를 갖는다. 기술대상자료에 대한 장소 관련 개체(p)와 시간 개체(t)는 FRBR Group1의 구현형, 개별자료와 'was published

in'의 관계로 정의된다. 각 개체들의 상세한 기술항목에 대한 관계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다.

5. 결론

고문헌만이 지닌 역사적, 정보적, 사회적 가치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재생산되는 여러 형태의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서지구조 마련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고문헌만이 가지고 있는 서지적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해야하며, 개체-관계 기반의 FRBR LRM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고문헌을 연계해야한다.

기존의 목록규칙인 KCR4는 단위저록 수준



〈그림 6〉 '묘법연화경'의 FRBR LRM 기반 서지기술구조

에서 기술대상자료에 대한 기술 데이터들이 나열되는 수준이었다면, LRM 구조를 기반으로 기술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부여하면 관련된 기술사항들이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하나의 항목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고문헌이 가진 서지적 맥락 속에서 기술항목 간의 이해관계가 부여되어 기술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기술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문헌 특성을 고려하여 DCRM의 규칙을 일부 반영하고, LRM의 11가지 개체 중 에이전트, 장소, 시간의 세 가지 개체를 중심으로 기술항목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된 기술항목들을 서지구조 상에서 연결하기 위해 수평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기반으로 관계 부여하였다. 기술항목들 사이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FRBR Group 1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각각의 개체와도 관계 설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지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기술대상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자료가 지니고 있는 서지적 맥락에 따라 관련 정보들이 연결되며 확장되는 새로운 서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단위저록 형태의 서지레코드만을 생성하고 있는 현 기술규칙에서 벗어나 서지데이터 단위로 기술항목들을 분리하고, 필요에 의해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져 비교적 유연하고 능동적인 서지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이한 기술규칙을 채택하여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고 있던 고문헌 운용 기관들 사이의 상호연계가 가능해지며, 분산되어 존재하는 고문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확장된 서지구조는 향후 BIBFRAME 형식의 서지데이터 생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고문헌 서지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 환경과 연계 가능하다는 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11).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활용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국립중앙도서관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1).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정하 (2003). 고서의 효율적인 정보조직 체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현 (2015). 사서오경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17-336.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06.317>
- 김정현, 문지현, 김효숙 (2013). RDA의 이해: AACR2에서 RDA로.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박지영 (2011). 책임표시의 기술방식 개선을 위한 역할어의 활용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65-82.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65>

- 오세훈, 남태우 (2002). 한국목록규칙 4판 초안의 고서목록규칙 분석. 제9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3-168.
- 옥영정 (2021). 한국 古文獻의 현황과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 서지학연구, 87(1), 5-29.
- 옥영정, 이해은, 유춘동, 오영식, 김효경 (2021).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슈페이퍼, 7.
- 윤소영, 박지영, 이해원 (2017). FRBR LRM을 이용한 고전자료 서지정보의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49-7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049>
- 이미화 (2019). 2019 개정 RDA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97-11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97>
- 이미화, 이은주, 노지현 (2022). LRM 이후 목록 동향과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의 수용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25-4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025>
- 이해은 (2021).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시기적 추이와 범주. 서지학연구, 87(1), 31-49.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Riva, P., Boeuf, P. L., & Zumer, M. (2017). IFLA Library Reference Model.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Kang, Soonae (2011).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of the Rare Book. Seoul: Aseamunwhasa.
- Kim, Jeong Ha (2003). Study of the Efficient Information Organization of the Rare Book.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Jeong Hyen (2015).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FRBR according to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of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317-336.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06.317>
- Kim, Jeong Hyen, Moon, Ji Hyun, & Kim, Hyo Sook (2013). Introduction to RDA: from AACR2 to RDA.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Hye Eun (2021). Defining a rare book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7(1), 31-49.
- Lee, Mihwa (2019). A study on analyzing the features of 2019 revised RDA.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97-11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97>
- Lee, Mihwa, Lee, Eun Ju, & Rho, Jee-Hyun (2022). Cataloging trends after LRM and its acceptance in KORMARC bibliographic format.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33(1), 25-4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025>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0).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old book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Integrated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Revised ed.).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
- Oh, Se-Hoon & Nam, Tae-Woo (2002). Analysis of cataloguing rules for old books in KCR4 draft.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Society, 163-168.
- Ok, Young Jung (2021).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and standards of Korean rare bo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7(1), 5-29.
- Ok, Young Jung, Lee, Hye Eun, Yoo, Choon Dong, Oh, Youngshik, & Kim, Hyo Kyung (2021). A New Approach to the Character and Category of the Rare Book. Issue Paper, vol.7.
- Park, Ziyong (2011). A study on using the role indicators to improve the description methods of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Society, 28(3), 65-82.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65>
- Yoon, So Young, Park, Ziyong, & Lee, Hye Won, (2017). Organiz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Korean classic materials using FRBR library reference model.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49-7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049>

